

# 崔孤雲傳攷

—「嶺南大學本」紹介를 兼하여 —

尹 榮 玉

## <內容>

- |                |              |
|----------------|--------------|
| I. 序           | V. 構造的對立     |
| II. 新發掘 崔孤雲傳   | VI. 結        |
| III. 崔孤雲傳의 傳奇性 | VII. 附《嶺南大學本 |
| IV. 英雄의 神話     | 崔孤雲傳》        |

## I. 序

이 글에서 紹介하고 살펴 볼려고 하는 <崔孤雲傳>은 漢文本과 國文本各 몇 種이 이미 發掘・紹介된 바 있다. 1955年에 鄭炳昱教授에 依해 <崔文獻傳>의 發掘・紹介되었고<sup>1)</sup>, 1959年에 刊行한 「李朝時代小說論」에서 金起東教授가 自身의 所藏本과 甲午更張以後의 活字本으로서 國文本 <崔孤雲傳>과 寶教授의 <崔文獻傳>을 比較・考察했다<sup>2)</sup>. 1966年에는 李正鎬氏가 異本考를 中心으로 하여 「崔孤雲傳研究」를 發表한 바 있다<sup>3)</sup>. 그리고 「太平廣記」와 韓國小說과의 對比考察에서 金鉉龍氏는 <崔孤雲傳>을 素材的인 面에서 「太平廣記」와 對比考察하고 있다<sup>4)</sup>. 李正鎬氏는 앞서 言及된 <崔孤雲傳> 외에 漢文本인 國立圖書館本 <崔孤雲傳>과 大朝鮮國 紀元492年 版으로 癸未年 8月 印行으로 되어 있는 國文本 異稱의 <崔沖傳>을 比較・紹介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崔孤雲傳>은 漢文 筆寫本 3種과 國文 活字本 2種 모

1) 鄭炳昱, 「崔文獻傳紹介」 肅齋 白樂濬博士 還暦記念 國學論叢, 1955. 11. 20, 「國文學散稿」新丘文化社, 1960.

2)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3) 李正鎬, 「崔孤雲傳研究」, (國語國文學論文集, 東國大 第6輯, 1966.)

4)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6. 25.

두 5種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筆者가 紹介할 漢文 筆寫本을 追加하면 6種으로 그 異本이 불어나게 된다.

이 作品들의 모델이 된 人物 崔致遠은 歷史의in 實存人物로 널리 알려졌고, 또 그를 說話한 作品들이 殊異傳을 典據로 한 ‘仙女紅岱’가 「大東韻府群玉」에 收錄되어 있고<sup>5)</sup>, ‘崔致遠’이 「太平通載」에 실려 傳해지며<sup>6)</sup>, 小說로서 ‘大觀齋夢遊錄’이 있고, 民間傳承으로 「왜지의 아들 崔孤雲」이 있다.<sup>7)</sup>

孤雲은 이미 歷史上의 實存人物을 넘어 說話上의, 또 小說의 作中人物로 오히려 大衆에게 널리 알려진 存在가 되었던 것이다.

說話上의 與味거리로서의 崔孤雲과 小說上의 主人公 崔孤雲과 歷史上의 崔致遠은 전혀 다르다. 說話나 歷史에서 與味를 誘發시킬 素材를 小說의 結構에 動員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素材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小說로서의 全體는 그들에 一貫하고 있는 意味의 集合以上의 것이다. 本 作品의 理解는 素材的인 意味의 集合以上에서 되어야 하겠다.

이 作品은 李朝小說 中에서 가장 民族精神이 發揮되어 있는 作品으로서, 우리 民族의 優越性을 中國民族에게 보여준 唯一한 小說이란 데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다.<sup>8)</sup> <壬辰錄>이壬亂後에 倭國에 對한 우리 民族의 敵愾心의 發露로 自國의 優越性을 나타내어 精神的 勝利感을 불러 일으킨 作品이라 한다면, <林慶業傳>과 <朴氏傳>과 <申遺腹傳>은 胡國의 請兵에 依하여 胡國을 侵略한 가달을 물리쳐 中原의 大國을 救援해 주었다는 內容으로 우리 民族의 對中國感情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崔孤雲傳>은 中原의 正統 漢族國家 大唐의 皇帝를 屈伏시켰다는 點에서 다른 어느 作品보다 民族의 優越感을 誇示한 作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作品의 理解를 여기에서 그칠 수 없을 줄 안다. 왜냐하면 이 作品은 崔孤雲의 傳記이기 때문이다. 崔孤雲을, 文章을 武器로 삼은 反唐的인 英雄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歷史의in 實存人物을 登場시켰기에 歷史의in 文脈上에 두고 歷史의in 意識을 追究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5)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卷十五.

6) 成任, 「太平通載」, 卷六十六.

7) 崔常壽, 「朝鮮口碑傳說誌」, 朝鮮科學文化社, 1949.

8) 鄭炳昱·金起東·李正鎬·閔丙秀諸氏

“民族의 意識 속에 흐르고 있는 潛在的인 斥漢思想을 이 作品을 通하여 形象化한 것이다.” — ‘韓國小說發達史上’(閔丙秀,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筆者는 異本을 紹介해서 追加하고, 이 作品을 素材의 傳奇性과 構成의 傳記性(英雄의), 構造의 對立을 살펴 좀 더 깊은 理解에 努力해 볼까 한다.

## II. 新發掘 崔孤雲傳

李正鎬氏는 「崔孤雲傳研究」에서 異本을 比較한 後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었다.

이렇게 볼 때 「崔文獻傳」을 筆寫한 것이 「崔孤雲傳」<sup>9)</sup>이 아닌가 생각되고 「崔孤雲傳」을 璞本으로 하여 筆寫者 일의대로 약간의 改作을 본 것이 金起東教授의 所藏인 「崔孤雲傳」이라 볼 것이다며, 이 「崔孤雲傳」을 國譯한 것이 「崔沖傳」이라 한다면 「崔文獻傳」을 가지고 國譯한 것이 近來 世昌書館에서 出刊한 「崔孤雲傳」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10)</sup>

이 結論을 바탕으로 筆者가 發掘한 <崔孤雲傳>을 比較・紹介한다.

이 <崔孤雲傳>은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東濱文庫에 所藏되어 있는, 歷史學者인 金庠基博士가 1971年 6月 10일에 寄贈한 圖書中의 一卷이다. 本傳은 漢文 筆寫本으로 뒤에 「東史抄」가 合冊되어 있고, 表紙가 없던 것을 세로운 表紙를 만들어 <崔孤雲傳>이라 題했다. 本 圖書館에서 整理作業 途中に 불여진 表紙인 것 같다. 筆者가 本 大學 圖書館 漢籍 目錄을 뒤지다 偶然히 發見한 漢文 筆寫本이다.

冊의 體裁는 가로가 18.5cm, 세로가 25cm, 本文단 24面, 每面이 13行, 每面 正確히 24字로 漏落된 곳의 補入까지 합하면, 7,518字로 되어 있다.

첫 面은 13行에 앞서 “崔致遠字孤雲”이라 本文의 一部가 앞에 나와 있다.

이 册의 表題은 알 수 없지만, 이를 筆者는 <嶺南大學本 崔孤雲傳>이라 命名할까 한다.

本 傳을 <崔文獻傳>과 <國立圖書館本 崔孤雲傳>에 對比해 본다.

序頭部分을 比較하면,

9) 이것은 國立圖書館本 《崔孤雲傳》을 指稱한 것이다.

10) 李正鎬, 前揭書, p.72.

①	②	③
〈A〉崔致遠新羅人文昌令冲之子也。	初羅王召拜冲爲文昌令。	乃還家不食而
〈B〉崔致遠新羅人文昌令冲之子也。	初羅王召拜冲爲文昌令。	於是還家不食
〈C〉崔致遠字孤雲新羅人文昌令冲之子也。 初羅王召拜崔冲爲文昌令。	初羅王召拜崔冲爲文昌令。	於是還家不食
④	⑤	⑥
泣。 其妻安氏問其故。 沖曰，君不聞之耶 吾聞之。 故文昌令失其妻者乃十數。	而泣。 其妻問其故。 沖曰，君不聞之耶 吾聞之。 故文昌令失妻者以十數。	而泣。 其妻問其故。 沖曰，君不聞耶 吾聞之。 文昌故令失其妻者以十數。
⑦	⑧	⑨
而吾恐見如此之變，故泣之。 安氏亦憂憇，不能食之。 居旬日冲將家屬至文昌縣。	吾恐見如此之變，故泣之。 妻亦憂憇，不能食。 居旬日冲將家屬至文昌。	吾亦恐見如此之變，故泣之。 妻亦歎息，不能食。 居旬日冲將家屬至文昌。
⑩	⑪	⑫
於是冲乃召邑中故老，問曰，昔聞此邑倅有失妻之變，果有如此乎。	於是乃召邑中父老，問曰，昔聞此邑倅有失妻之變，果有如是之變乎。	於是乃召父老，問曰，昔聞此邑有失妻之變，果有如是之變乎。

〈A〉鄭炳昱藏本 崔文獻傳

〈B〉國立圖書館本 崔孤雲傳

〈C〉嶺南大學本 崔孤雲傳

如上三本의序頭部分對比에서 嶺南大學本은 國立圖書館本과 表現이同一한 곳이 5文章으로, <崔文獻傳>보다 가깝게 보인다. <崔文獻傳>과 그表现이完全히一致하는 곳은 한文章도 없다.

本傳만相異한表现을 보면,

①에서他本에 없는 “字孤雲”이 插入되어 있고,

②에서他本에 名字만으로表现된 곳에 姓名 함께 “崔冲”이라 되어 있으며,

⑤에서他本에서 “君不聞之耶”로 된 것을 “君不聞耶”로 더욱呼吸을 急迫하게表现했으며,

⑥에서他本의 “故文昌令”代身에 “文昌故令”으로 表現이 流麗하고,

⑭에서他本의 “昔聞此邑倅有失妻之變”한 것을 “倅”를 빼고 表現해서 文脈이 더 잘通하는 것 같다.

三本이完全各異한 곳을 보면,

⑥에서 <A> “失其妻者乃千數”, <B> “失妻者以十數”, <C> “失其妻者以十數”로 그 差異는 僅少하다.

⑦에서 <A> “而吾恐見如此之變”, <B> “吾恐見如此之變”, <C> “吾亦恐見如此之變”으로 文章呼吸으로 <C>가 훨씬 어울린다 하겠다.

⑧에서 <A> “安氏亦憂憊”, <B> “妻亦憂閼”, <C> “妻亦歎息”으로 <C>가 훨씬 形象的이요, 實感이 난다 하겠다.

⑪에서 <A> “於是冲乃召邑中故老”, <B> “於是乃召邑中父老”, <C> “乃召父老”로 여기서도 호름이 急迫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 表現이 훨씬 優秀한 것이 <嶺南大學本 崔孤雲傳>이라 하겠다.

다음 結尾部分을 對比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 謂之曰，羅王出遊矣，信之。		遂往而見之	則乃獵人也。謂其人口，吾爲汝之			
<B> 謂之曰，國王出遊矣，致遠信之，遂往見			乃獵人也。謂友人曰，吾爲汝之			
<C> 紿之曰，大王出遊，致遠信之，遂往見之			乃獵人也。 ——	—	—	—

⑧	⑨	⑩	⑪	⑫
責矣。仍騎駆而行	至東門外，遙新羅王出遊，見致遠騎廻而出		乃令人捕	
責矣。遂騎廻而行	至東門外，遙羅王出，見致遠乘廻而行		乃令捕致	
遂行	至東門外，遙羅王出遊，見致遠遙遊大國今以還		乃令人捕	

⑬	⑭	⑯	⑯	⑰
投於前	乃責之，余欲誅	而爲其功多	故不忍加罪而赦，今後毋令餘也。	
遠於前	切責曰，余欲誅	以爲其功多	故不忍加罪，此今後毋更見新。	
縛致遠	切責曰，予欲誅汝	而爲其功多	故不忍加罪，汝今以後毋令見我。	

⑯	⑯	㉑	㉒
自此之後小住，致遠得罪之於王，	遂將家人入伽倻山，		
由是，致遠得罪羅王，	遂將家人入伽倻山，		冠履倒置林下，
由是， ——	致遠遂將家人入伽倻山，		—

㉓			
不知終焉。（鄭）			
不知何去云耳。（國）			
不復還焉。（嶺）			

위의 對比에서, <A>, <B>가 同一한 文章이 4, <B>, <C>가 同一한 文章이 5, <A>, <C>가 同一한 文章이 1, 다 同一한 文章이 1, 각各 相異한 文章이 10, 이렇게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여기서 <A> <B>에 있는 文章이 <C>에서만 빠진 곳이 3이나 된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嶺南大學本이 他 三本보다 殊異함을 알겠다.

<A>, <B>와 <C>가 가장 두드러진 差異를 보이는 곳이 ⑥, ⑦, ⑧의 文章이다. <A>, <B>에서는 若干의 表現의 差만 있고 意味上의 差異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C>에서는 <A>, <B>의 意味上의 文章이 빠져 있다. <A>, <B>의 ⑥, ⑦, ⑧의 文章은 ⑤, ⑩ 文章 사이에 連結이 不透明해서 文脈이 잘 通하지 않는다. 反面 <C>에서는 “遂行至東門外”로 ullen 連結이 自然스럽다, 그리고 ⑪의 表現에서도 <A>, <B> 보다는 <C>가 作品 全體의 意味나 歷史的인 文脈에서 ullen 安當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⑯의 表現도 마찬가지다. <A>, <B>의 “自此之後小住(由是)致遠得罪之於王(得罪羅王)”의 表現은 前後 文脈이 不透明하다. 그러나 <C>에서는 이 部分이 없이 “汝今以後毋令見我”했기에 (由是) “致遠遂將家人入伽倻山”하여 文脈의 呼應이 ullen 透明하고 流麗하다. 그외도 ②의 羅王<A>, 國王<B>, 大王<C>에서 作品 全體의 内容으로 보아 “大王”이 ullen 適切할 것 같다.

여기 金起東教授의 <崔孤雲傳> 結尾部分만 引用하여 그 差異를 살펴 본다.

至新羅境，人聚溪邊，致遠問於故舊，諭之曰，國王出遊，往見之 則乃獵人也，致遠之友曰，吾爲汝之所賣矣，遂騎駒馬，行至新羅東門外，會羅王出遊，見致遠乘駒馬而過，令人捉之，乃致遠也，王詰之曰，犯馬君王，罪當誅之，然吾國有功之人也，即赦之曰，是後勿如是，致遠歸家，丞相已死，遂將羅氏入伽倻山，可謂奇矣。

以上이 위의 三本과 같은 内容의 部分이다. 그 表現이 다르나 <崔文獻傳>이나 國立圖書館本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結尾에 다시 다음과 같은 文章이 後續되어 一種의 epilogue를 이루고 있다.

正德中 樵夫荷斧入山，儒與僧共坐匱幕，儒曰，檢丹禪師 汝當不勝，僧曰，文章孤雲 汝當不勝，互相戲語 着碁，樵夫忘却歸意，良久見之，所執斧柄一局之間已朽矣，於是 回顧，日昃，告歸，儒出食，如餽沈鬱之綿，樵夫啖之，吮飲吐津，儒曰，啖之食則爾亦從我，不堪吐津，留此難矣，仍以許歸，樵夫下山歸家，則家人喪夫已過三年

而服除矣。樵夫知其崔仙，乃以單壺再往，則前者所見之地只在空舍也。樵夫感歎，遂祭乃還。至伽倻，正至今中入宿之說實不虛也。月影臺上有老梧桐數株，枝可連雲，根可數圍，又有八仙臺舍，不知某年造作，而其前兩石碑皆有刻字，一則太吉未能解見，一則甲申埋香云。而亭舍老樹萬曆壬辰爲倭大所盡，自毫迤北有蓮臺塘，砌石已頽，只存蓮塘形，峯上則星河近囁，腰則黑雲匯帶，孤雲遊之跡至今傳播人口。所入者崔仙在中原與學生酬酢及謫所慷慨之時所製詩軸亦不記書，豈不惜哉。

이것은, 孤雲을 脱俗한 仙子로, 生死를 超越한 人間으로, 그리고 그것이事實임을 強調하기 為한 意圖가 깃든 後人の 添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國文本 <崔沖傳>을 보면, 그 結尾部分에,

동문방하니고려 국왕이나와 노로신다 혀여는 희공이 나아가 묘경대신들을 보고  
반가히 너자 국왕께 옛셨니 왕이 대회께서 축시 부르시니 희공이 드려가 소비한 후  
에 중월 소정과 길기던 일을 일일이 아뢰니 왕이 칭찬께서 완경에 공덕은 호회  
트다 하고 각별 칭찬하시더라. 희공이 나승상 전에 도라오니 승상님위는 세상을 나  
쳤하였고 그 안희 나시 풍로 있더라. 서루 만나에 만감교 출입기 총낭업스나 나승  
상남위 업스를 출허하더라.

.....  
희공이 그 안희를 드리고 가야산에 드러간 후에 종적을 모루더니 정덕년간에 耗  
류 소를 불고.....

위의 引用에서 孤雲이 돌아와 王을 만나는 場面이 漢文本과 相異함을 알  
겠다. 漢文本과는 달리 王의 款待를 받고 있다. 이는 後代小說의 影響에 依  
한 改作이라 할 수 있다. 漢文本의 創作意圖와는 전혀 다른, 後代小說의 主  
人公의 叙述類型을 그대로 模倣한 改作이다. 그리고 “정덕년간에……” 以下의  
部分은, 金起東教授本을 그대로 國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李正  
鎭氏의 所論과 같이 <崔沖傳>은 金教授本을 套本으로 한 翻譯・改作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世昌書館의 國文本 <崔孤雲傳>을 보면, 그 結尾에

금은 체관을 무주히 상사하시니 어새 찰아 쳐나가 어려오나 사실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한 고향생자이 암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며 은을 축사하고 나오니 만조백관  
이 모두 이사의 환국함을 이상히 역이며 깃부개 역이며 애惜히 넉어는 자드리 만기  
로 신령하는 재 부치기 쉬더라. ....진덕녀왕께에 시무에 요진한 십팔조를 베프려  
맞쳤더니 너왕이 대회하야 아손벼살을 쇄혔으나 조한 계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으

며 고려 태조 왕건이가 서북방에 셰 이라나 신라국이 장차 업셔지게 된지라. 고운 선생이 그 사세 엇지한수 업서 왕시년하가 될 줄 알고 벼슬을 하직하고 처자를 데리고 가야산으로 드려가 맛침내 신선이 되엇더라.

여기서도 歸國한 孤雲에 對한 態度가 <崔沖傳>과 같다. 主人公에 對한同情의 態度로 終局에 가서 그를 不運에 몰아 넣을 수 없다는 우리 小說作家들의 共通된 意識의 所產인 것 같다. 여기서는 歷史的 事實<sup>11)</sup>을 더 添加하여 實傳의 結尾를 이루고 있다. 金教授本이나 <崔沖傳>의 結尾 以後部分이 없다는 點에서 餘他의 漢文本과 同系일 것 같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筆者が 紹介한 <嶺南大學本 崔孤雲傳>은 鄭教授의 <崔文獻傳>이나 <國立圖書館本 崔孤雲傳>과 同系이나 그 結尾處理가 훨씬 優秀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原作與否, 原作에의 近似值, 所成年代, 筆寫의 先後는 알진 이 없다. 鄭教授의 <崔文獻傳>이 慎獨齋의 手澤本이라 한다면 <崔孤雲傳>은 孝宗年間 以前의 作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崔孤雲傳>의 傳奇性

鄭炳昱教授는 ‘崔文獻傳紹介’에서,

이제 이 崔文獻傳의 내용을 그 背景만 추려서 순서를 끊어 항목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하거니와, 요컨대는 아래에 드는 十餘個의 獨立된 說話들이 한데 엉키어 하나의 小說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제각각 등장된 설화들은 단편적인 口傳說話로서 험간에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있고, 또 類似한 說話가 그 대상을 달리하여 古文獻에 歷史的인 事實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어 古代說話의 類型의 性格을 보여 주고 있다.

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10個의 說話로 나누어 考察하고 있다.<sup>12)</sup>

#### 1. 金猪說話(誕生說話)

11) 「三國史節要」 “眞聖王 八年春二月 崔致遠進時務十餘條。王嘉納之以爲阿寔。致遠東遷值世亂，自傷不遇，挈家隱於鵠山，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結爲道友，以終老焉……”

致遠知新羅將亡 高麗將興……”

12) 鄭炳昱, ‘崔文獻傳紹介’(‘國文學散稿’ pp. 215~220.)

2. 桑兒說話(幼年時代) [①桑兒說話, ②後文說話, ③贈談說話]
3. 破鏡說話(思春期)
4. 入唐說話(中路插話) [①龍宮赴宴說話, ②魏耳嵐酒雨說話, ③遇神人說話]
5. 受難說話(留唐時代) [①入宮說話, ②誦貶說話]
6. 歸國說話

金鉉龍氏는 本傳의 傳奇的인 素材들을 「太平廣記」의 影響下에서 考察했다.<sup>13)</sup>

그러나 筆者는 이 作品을 形成하고 있는 說話들의 傳奇性을 考察하여 그 것이 이 作品의 意圖와 어떤 相關性을 가졌는가를 살펴 볼까 한다.

孤雲의 誕生過程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金豬荒話라고 하는 것이다. 懷姪四個月에 孤雲의 母親이 “神仙之地”的 “天宮”과 같은 곳의 金色黃金豬에게 끌려 갔다가 꿀 救出되어 六個月後에 出產한 것이 孤雲이다. 仙間의 金豬를 登場시킨 것은 孤雲을 桑逐기 위한 考察이요, 이는 非現實의인 것이다. 論理的으로 不可能한(金豬에게 被拉當時 妊娠四個月이요, 救出後 六個月에 출산했기때) 것을 感情, 體面와 威信 때문에<sup>14)</sup> 桑兒判 한다. 이것이 바로 이 作品의 決定的인 發端이다. 이런 面에서 金豬의 出現은 意味 있는 것이다.

桑逐皇 孤雲은 天種을 말아 天女가 乳哺養之한다. 이리하여 4년던 父母에게 莖藤을 蓄起시킨다. 遷受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 計策으로 遷率來 할려 하니 孤雲의 反對에 逢着한다.<sup>15)</sup> 버려진 孤雲이非凡함을 나타내기 為하여 “天恤과” “天女養之”가 動員된다. 天女에 이어 天儒에 依하여非凡한 文章力を 修得하게 된다.<sup>16)</sup> 이는 바로 孤雲을 天上人으로 만들어 주기 為한 것이다.(後半部에서 謂仙임이 밝혀진다.) 여기서 孤雲은非凡한 힘(文章力)을 가진 存在로 完成된다.

이 힘에 對立되는 劢勢을 登場시키기 為하여 그의 詩詩聲이 中原皇帝의

13)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pp. 318~329.

14) “冲之妻所產之兒 在家之時孕之必然 向者忽被金豬之妻 沖稱其兒爲金豬之子 而棄於海濱。” “冲深感曰 吾亦欲遷率來 然始此兒 名金豬之子而棄之 今若遷來則人必笑我矣 是以難之矣。” (※ 嶺南大學本 崔孤雲傳, 以下 本文引用도 같음.) 등의 文章이나 汎의 말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다.

15) “兒曰，父母始以我名金豬之子 而已棄于此 不小愧 而今欲見我耶，……強欲取我 我當沒濟矣。”

16) “天儒數千會其臺上 各以所學 競教其兒 由是大悟文理 遂成文章。”

敵意를 誘發시킨다.<sup>17)</sup> 이는 孤雲의 힘을 發揮케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究函中之物作詩獻之”하여 中原皇帝의 面前에 서게 된다. 非凡한 天上의 才質을 갖고 있기에 可能했다.<sup>18)</sup> 그러한 才能을 確信시키기 為하여 龍子李牧으로 하여금 孤雲을 龍宮으로 案內케 한다. 그래서 孤雲의 非凡을 한층 強調한다.<sup>19)</sup>

魏耳島에서 李牧으로 하여금 降雨케 하고, “不受天命擅自下雨”케 한 李牧을 誅殺하도록 天僧을 내려 보낸다. 그러나 그 天僧은 바로 孤雲의 天上人임을 證言케 為한 것이었다.<sup>20)</sup>

途中에서 만나는 浸醫綿을 준 浙江의 老嫗, 大患을 預言해 준 陵原의 一老翁, 水邊에서 符籍을 준 美女 等은 孤雲을 不死之人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闕門에 埋設된 陷井에陥沒되지 않았고, 毒藥을 識別할 수 있었으며, “貶南海島上絕食”하여도 不死했다. 오히려 그는 島上에서 “與僧共坐而讀書”하고, 天女數十이 “羅列唱歌”해 주었다. 이로써 그는 死地를 벗어나 中原皇帝를 “大驚下床頓首謝之”케 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이作品의 非現實的 傳奇性은 危機에 處한 主人公의 偶然의 事件處理나 與味為主의 結構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意圖된 主題의 具體化를 為해서 必要不可缺의 考案으로 勳員된 것이다. 主題의 非現實性이 素材의 傳奇性을 招來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作品에서 歷史性(現實性)이 全혀 無視된 것은 아니다. 孤雲이 歷史의인 人物이며 그가 羅末 文章大家로 그의 詩文이 많이 남아 있어 그의 文章이 著譽함을 認定받고 있다는 點도 그렇고, 12歲에 渡唐하여 賓貢科에 及第仕宦했다는 點과 ‘討黃巢檄文’을 지어 黃巢를 屈伏시켰다는 點도 歷史의인 事實이고 還國하여 新羅에서 待接을 못 받고 逍遙하다 伽倻山에 들어가 終焉했다는 것도 事實이다.

17) 天下學士中 卓然者 二人을 選拔하여 新羅文士와 校藝케 했으나 六歲 致遠을 탄나고 돌아가 “新羅之仗 文才高遠者不可勝數 而其中 又有尤詳者 雖如臣等百數 不能敵也”라 告하니 皇帝가 大怒하여 신라를 攻擊코자 했다.(於是 帝大怒 欲攻新羅)

18) 養馬・養花에서, 羅氏女의 夢事(羅女亦憑假寢夢 雙龍從天而下 相交於函上 又有 五色班衣之童十裴奉函而乃立唱歌 函欲自開 俄有五色瑞氣出 自雙龍之喉竚照函內 紅衣青白之人羅列左右 或製詩呼之 或搦筆畫之際 忽覺 夢事大異)에서도 證明된다.

19) (李牧) 對曰, 今聞. 先生以天下文章 將到此 故從學而至此待之. 復言曰, ……偶得天下文章 非天欲使我得聞聖人之道耶. ……龍王曰, 文章幸為我見弊忘而不留數日 卒然遂行 於我心有憾憾焉…….

20) 天僧曰, 天帝命我曰, 崔致遠在天上時, 過得微罪而落於人間耳 本非人間碌碌之人也…….

歷史性의 날에 傳奇性의 씨를 交織해서 한편의 作品을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歷史性이 story를 爲한 것이라면, 傳奇性은 主題를 爲한 것이다.

#### IV, 英雄의 神話

金烈圭教授는 “李朝小說類가 說話 fairy tale와 紐帶를 맺고 그럼으로써 傳承의 源泉인 祭儀에 스스로의 源泉도 두고 있는 것이라면, 槟榔하 神話 내지는 神話的 傳承類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sup>21)</sup>”고前提하고, <崔孤雲傳>의 傳記의 類型을,

- ① 孤雲의 母가 금돼지에게 물들려 갔다 온 뒤 孤雲을 낳는다.
- ② 태어난 孤雲이 버려진다.
- ③ 버려진 孤雲을 鳥獸가 保護하고 仙女가 授乳한다.
- ④ 文章에 神異를 보이고 그 神異로써丞相의 딸을 아내로 맞는다.
- ⑤ 渡唐하여 立身揚名한다.
- ⑥ 귀양살이의 試鍊을 끝내고 故鄉에 돌아온다.
- ⑦ 神仙으로 化한다.<sup>22)</sup>

와 같이 分類하고 ⑤, ⑥項을 除하고는 東明王傳承과 相符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3)</sup>

人類學者들은 두개의 單元神話を 밝혀 냈는데, 그것은 季節神화와 英雄神화다.

英雄神화에서는 그 強調가 그 社會에서의 英雄의 特殊한 性質에 있다. 그 英雄은 보통 神秘의이거나 特殊한 環境下에서 태어난다. 그는 偉大한 人間이나 神의 子息이요, 卓越함(特殊의 表示)으로 特徵지워진다. 그는 罷을 때 追放 당하거나 障碍에 逢着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試驗이나 試鍊에 依하여 英雄의 役割에 對한 그의 性質을證明해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그의 百姓들을 爲하여 偉大한 行爲를 成遂한다. 그의 죽음은 때때로 神秘의이거나 모호하기도 하다. 결국 그는 죽지 않았거나, 再生했거나,

21)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p. 92.

22) Ibid., p. 93.

23) Ibid., p. 94.

정말 必要한 어느 층날에 다시 돌아 오리라는 暗示가 있다.<sup>24)</sup>

이러한 英雄神話의 痕跡을 우리는 <崔孤雲傳>에서 發見할 수 있다.

즉 그는 不利한 環境에서 태어나자마자 父母로부터 벼립을 당한다.<sup>25)</sup> 그는 天性을 받아 成長한다. 天儒에 依해 文章力を 修練한다. 國家의인 課題를 解決한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逢着한다. 그러나 死地에서 풀려나 歸國・入山한다.

<崔孤雲傳>의 이러한 줄거리는 英雄神話의 그것과 相通함을 본다. 그는 不利한 環境에서 태어나 벼려져서 卓越한 性質을 얻게 되고, (天仙이었다는 것이 偉大한 人間이거나 神의 子息임에 代替되어 있다.)百姓國家을 為하여 偉大한 行爲를 成遂하고 그 때문에 그는 죽음에 逢着했으나<sup>26)</sup>, 그의 文章力에 依하여 죽음을 克服한다.<sup>27)</sup> 이는 英雄的인 그의 性質을 證明해 보인 것이라 하겠다. 다시 죽음에 逢着했으나 그의 英雄的인 功績에 依하여 벼려나 入山・不復還焉한다.<sup>28)</sup>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本來의 天仙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의 英雄的인 性質은 武에 代替된 文의 英雄이다. 이는 英雄의 傳記다. 그는 神話의인 英雄이요, 集團的・民族的 英雄이다.

이런 點에서 앞의 傳奇性은 더욱 認證되며 英雄의 神話의인 이야기는 이作品의 意圖的인 面에서 스스로 要求되는 結果였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作品은 單純한 傳奇物이나 後代의 傳記體 小說들과 스스로 區分된다 하겠다. 이는 民族의인 要請에 依하여 이쪽은 作招이란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作品은 後代의 個人的인 英雄의 傳記인 作品들보다는 華麗 以前의, 傳奇體 小說 以後에 成立될 수 있었던 作品이라 하겠다. 어찌 보면 이作品의 Motif은 高麗朝에 이미 칼들려졌다가 後代에 記錄・定着된 것 인지도 모르겠다.

24) Myths & Motifs in Literature, edited by David J. Burrows·Frederick R. Lapides·John T. Shawcross. pp. 2~3.

25) 이는 神話의인 意味의 褪色이나 衰失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 中原皇帝가 “汝國若不能究此函中之物而 作詩獻之 則汝國暑而滅之矣”라 하면서 출 課題를 孤雲이 解決하고, 解決했기에 皇帝 앞에 풀려가 死線을 여려면 넘고 中原大臣들의 嫉妬와 魏敗를 받아 “貶於南海島上絕食”하게 된 것은 國家를 代身한 試驗이라 할 수 있다.

27) 安南國使者……遂停船上謁 詩詩於儒 其儒作詩與之……使者……以其詩獻于皇帝……帝招群臣 以詩示之曰 觀其詩 意雖若致遠所製之詩……乃使人更招致遠……

28) 羅王出遊 見致遠遙遊大國今以還來 乃令人捕縛致遠 切責曰 予欲誅汝 而其功多 故不忍加罪 汝今以後毋令見我 由是 致遠遂將家人入伽倻山 不復還焉.

## V. 構造的 對立

위와 같이 볼 수 있음과 同時에 孤雲의 個人的 歷史性도 아울러 意味를  
지니는 個人傳記의 作品으로도 理解되어어야 하겠다. 이 作品이 崔孤雲의 傳  
記이기 때문이다. 이런 觀點에서 이 作品의 構造的인 對立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實傳에서는 孤雲이 入唐求學할 때 其父가 “十年不第非吾子也”<sup>29)</sup>라고 激勵  
當付한 記錄밖에 없는데, 이 作品에서는 죽기를 바라고 離逐한 父와 子의  
對立을 成立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世俗的인 父와 天上的인 子와의 對立을  
意味하고, 一旦은 世俗의in 것에 依한 天上的인 것의 敗北를 나타내 주나  
곧 그것은 勝利라는 것을 알게 된다.<sup>30)</sup> 이러한 敗北의 勝利는 이 作品을 一  
貫하고 있는 對立의 構造原理다. 羅氏女와 繕鏡之賈, 羅丞相과 破鏡奴, 中  
原皇帝와 致遠父의 對立이 다 그렇다.

世俗의in 權威의 孤高한 모습에 對한 天上的인 것의 卑賤함으로 世俗의in  
次元에서 天上的인 것은 그 世俗의in 權威 앞에 一旦은 敗北가 要求된다.  
그러나 二次의으로 그 敗北는 勝利로 判明乃至는 成就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克明하게 나타나는 것이 結尾部分이다. 中原皇帝가 新羅를 “屠滅”하기  
위하여 보낸 國家存亡이 달려 있는 課題를 解決하고 다시 불려 갔다가 死境  
을 넘어 돌아온 孤雲을, “出遊”한 王이 “邇遊六國”했다고 捕縛해 죽일려고  
한 것은 對立의 重을 ○ 른다 차았다. 孤雲의 功○ 多大를 알고 차다 罪를  
加할 수 없다면서, 어찌 “邇遊六國”한 것의 間諺 할 程度의 罪가 되었는지, 徒  
細히 않으나 中原對 新羅의 對立感情을 極大化하기 위한 것이 아닐가도 생  
각된다.<sup>31)</sup> ○ 리하여 그는, 王을 보지도 못하게 해<sup>32)</sup> 伽倻山에 들어가 들어오

29) 『三國史記』卷 48, ‘崔致遠’。

30) (“妾” 謂其夫曰 始以此兒名金猪之子 而棄於河邊 實非金猪之子 故天知障昧之意  
令天女乳養此兒 願令道人招還奉來……如從我言則 雖還此兒 君無見人之嗤笑矣 冲  
從之。）

“兒曰 父母始以我名金猪之子 而已棄于北 岂不小愧而今欲見我耶……強欲取我 我  
當沒海矣。”

“冲汝之曰 我之過也……沖自責其過曰，吾亦懶於汝。”

31) 그것은 中原에서의 孤雲의 中原을 위한 功勳(鎮黃巢亂) 때문인 것 같으나, 他  
本에서는 孤雲의 不遜으로 切責을 當한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

32) “汝今以後母令見我”

지 않았다.<sup>33)</sup> 이것은 世俗의 權威에 對한 敗北를 말하나 “不知終焉”<sup>34)</sup>, “不知何去云耳”<sup>35)</sup>라는 結尾나 菩仙의 이야기가 登場하는 것<sup>36)</sup>으로 보아 世俗을 超越한 天上的인 存在에의 回歸로, 다시 말하면 敗北의 勝利로 理解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作品은 新羅末期의 社會의in 狀況을 反映한 歷史性이 多分히 나타나 있다 하겠다. 그것은 特히 羅丞相과 大王과 孤雲의 對立에서 分明해진다.<sup>37)</sup> 實傳에 있어서의 孤雲의 處地를 그대로 形象化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社會的 狀況은 비단 羅末 뿐만 아니라 社會의 階層의 構造가 嚴格히 維持된 時代에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作品은 단지 “우리 民族의 優越性을 中國民族에게 보여 준”<sup>38)</sup>, “崔致遠이 晚年에 神仙이 되었다는 傳說에서 素材를 얻어 神仙思想에 依해 致遠의 道仙의in 生涯를 表現하려 보고자 하였으며, 致遠의 反抗의 行動을 通하여 恒常 中國民族에게 抑壓되고 팽박 받아 오던 우리 民族의 民族의in 猶持를 發揮하여 文學의 領域에서 나타 中國의 霸權에서 脱皮하여 살아 보자는 意志에 찬 意志와 恒常 中國民族이 우월감을 가지고 大國이라 自慢하며 小國인 우리 民族을 凌侮해 오던 中國民族을 崔致遠의 道仙의 行動을 通해 황당무계하고 審話의in 이야기로서나마 鬱憤하고 凌蔑해 보고자 하여”<sup>39)</sup> 쓴 作品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世俗의in 權威에 對한 反抗(羅丞相<sup>40)</sup> 中原皇帝에 對한)과 世俗의in

33) “山是焉。致遠遂將家人入伽倻山。不復還焉”

『三國史節要』에는 “致遠東還值世亂。自傷不遇。無復仕進意。挈家隱伽倻山。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結爲道友。以終老焉.”이라 孤雲의 末年을 記述하고 있는데 이는 이 作品의 結尾部分과一致함을 알 수 있다.

34) 崔文獻傳

35) 國立圖書館本<崔孤雲傳>

36) 金起東教授本<崔孤雲傳>

3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研究」, 一潮閣.

“그려나 이미 官職을 버리고 放浪生活을 하였는데, 그것을 骨品制의 制約으로 인해서 그의 政治的活動이 한계점에 도달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p.47)

『三韓史記』卷 48, 列傳六, ‘崔致遠’

“致遠自以西學多所得 及來將行已志(欲展所蘊)而衰季多疑忌不能容.” (( )은 「三國史節要」의 表現)

38)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39) 李正鎬, 前揭書.

40) “丞相……乃責破鏡曰汝以我之倉頭不聽吾言罪當斬之仍命他奴將下斬之.”

“破鏡佯忍許之……自言曰此所謂多被敵兵欲殺謀臣者也如我者雖死不足惜也其於丞相何爲.” “仍以足推亟而偃臥曰吾雖寸斬不能作詩也.”

權威의 橫暴(孤雲의 父나 羅王의 孤雲에 對한)를 表出해 놓은 民族的<sup>41)</sup>・民衆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汝今以後母令見我”한 羅王의 驅逐<sup>42)</sup>에 의해 “入伽倻山 不復還焉”<sup>43)</sup>한 데서 限界性을 느낀다. 이것은 王命에의 絶對伏從이란 忠義觀念에서 不得已한 李朝小說作家들의 Moral이요, 儒教의 인權威가 支配하고 있던 社會의 인 制約狀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孤雲當代의 狀況일 뿐 아니라 以後 王道政治가 行해지고 있는 社會의一般的인 狀況이다. 뿐만 아니라,非凡한 能力의 優越者를 猜忌嫉妬하는 人間의 世俗의 인 心理를 나타내었다고 하겠다.<sup>44)</sup>

이런 觀點에서 이 作品은 現實性을 가진다고 하겠다. 非世俗的, 天上的의 기 때문에 世俗의 인 權威에 屈伏하는 것 같지만 事實은 그것을 超越한다. 그래서 孤雲은 伽倻山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現實의 敗北는 非現實의 勝利 밖에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民衆의 意識이었던 것이다.

## VI. 結

이 글을 쓰게 된 動機는 偶然히 發見한 <崔孤雲傳>의 한 異本인 <嶺南大學本 崔孤雲傳>을 읽고 他本과 比較해 그 結尾處理가 優秀한 것 같아 學界에 話介하자는 데 있었다. 거기에 慾心이 더불어 이 <崔孤雲傳>을 좀 더 仔細히 理解해 보고자 몇 個의 글들을 읽고, 筆者の 생각을 開陳해 보았다.

<崔孤雲傳>은 表題가 다른 것이 있으나 內容이 大同小異함으로 全部 <崔孤雲傳>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漢文 筆寫本과 國文 活字本으로 遺傳하고 있는데, 前者가 後者에 先行되는 것 같다. 漢文本이 筆寫로만 傳하니(지금까지 發見된 것에 限해서) 印行된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를 異本에 作者나, 筆寫者나 그 年代의 銘記가 없으니 創作年代를 알 수 없으나, 이 作品의 類型으로 보아 우리 小說史上 <金鰲新話>와 <洪吉童傳>의 中間에 位置할 수 있는 作品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素材의 傳奇性이나 英雄神話의 殘滓로, 그러면서 傳記라는 面에서, 主題의 非現實性에서 傳奇性은 不可避할 것이요, 民族의 인感情의 表現으로 英雄神話의 인 이야기가 要求되며, 社會狀況이나 民族意識의反映으로 傳記性이 理

41) 中原皇帝를 屈伏시킨 점에서

42) 이는 孤雲父가 新生兒 孤雲을 棄逐한 것과 같다.

43) 孤雲母에 의해 孤雲을 歸還토록 했으나 拒絕한 것과 같다.

44) 中原學者 官僚들의 孤雲에 對한 態度도 마찬가지다. (致遠擒魁首而來 帝大悅 益封食邑且賜黃金萬錠得幸 群臣無及 由是 大臣姑賢 婢能 多讐…….)

해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작품은 世俗의인 權威에 對한 非世俗의인 것의 故北가 勝利로 나와나는 構造原理로 一貫되어 있다. ‘民’은 ‘天’이라는 等式觀念이 通했다면, 非現實的인 天上的인 存在는 바로 民衆의인 것으로 代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自以西學多所得 欲展所蘊 而衰季多疑忌 不能容”한 孤雲은 이에 適切한 Model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VII. 附〈嶺南大學本 崔孤雲傳〉

崔致遠字孤雲

新羅人文昌令冲之子也初羅王召拜崔冲為文昌令於是還家不食而泣其妻問其故冲曰君不聞耶吾聞之文昌故令失其妻者以十數吾亦恐見如此之變故泣之妻亦歎息不能食居旬日冲將家屬至文昌乃召父老問昔聞此邑有失妻之變果有如是之變乎對曰有之矣冲乃為益惧每令群婢共守其妻而自出外以治其職乃於一日黑雲自起天地晦暗風雷暴雨電翻騰守者皆驚伏俄而視之其妻已失矣乃大驚出而告於冲驚惧不自勝焉先是以紅絲係其妻手而出於外以治其任及其失妻與縣吏李績尋紅絲至於日岳嶺峽谷下紅絲之巖隙而入乃呼妻慟哭李績自慰曰公妻已失慟哭何為吾聞之古老曰此巖隙夜則自開公莫還于邑待夜來見可也冲從其言乃還邑翌夜又抵峽谷下至十五步許而止矣忽見峽石間有光如燭徃視之果有富室自開中乃喜遂從隙入其中

地廣且沃花樹叢濃有非常之鳥羅滿於花枝矣於是冲嘆然歎顧謂李績曰世間安有如此之地乎必神仙之地也遂東行幾至五十步許有一大家而甚其壯麗正如天宮矣於是冲聞臺樂之聲竄入花間倚憩視之有金色黃猪乃施其妻之膝於龍文席而睡又有佳女十輩羅列矣冲所佩藥囊遂開出藥令吹於風其妻以香臭心知夫未遂涼江既已金猪曉覺問曰是何有人間有臭耶其妻詣之曰風吹蘭花故有香臭耳人間香臭何以至此乎又問曰君何以哭泣也答曰吾覘此地與人間殊異我是人間之恐不可長享此地故泣之金猪曰此池之人必無死理顧勿悲也妻仍問曰吾在人間時公間之人見虎皮而死果有如是之理乎曰吾未知識但以虎皮瀆於溫水以付枷後則我不一言而死矣言訖而復睡妻欲試之恨無虎皮忽槐之所佩鎖纓乃虎皮也妻潛解瀆於池以付金猪之頸果不

一言而死焉於是平與其妻偕返而故令妻十輩亦賴崔冲之  
德皆歸於故鄉矣冲冲之妻所產之兒在家之時孕之必然向者  
忽被金猪之变冲稱其兒為金猪之子而棄於海濱天恤其兒  
見弃遣天女乳哺養之矣於是妻聞之謂其夫曰始以此兒名  
金猪之子而棄於河邊宗非金猪之子故天知眞昧之意令天  
女乳養此兒願令速遣人招還幸未冲深感曰吾亦欲還幸未  
然始此兒名金猪之子而弃之今若還幸未則人必笑我矣是以  
難之矣妻曰君若嗤笑為難願作捕病避寓於吏舍如從我言  
則雖還此兒君無見人之嗤笑矣冲從之先是靈巫遁未衙內  
其妻解衣授之間其所居其<sup>五</sup>居於牽騎洞李僉知家前耳至  
是其妻陰使人於巫家請之巫未至其妻乃賜帛百疋曰說曰  
願為我言諸吏曰汝負以其所產之兒詐為金猪之子而弃於  
海濱故天憎汝負得病矣今若尋還幸未則汝負之病癒矣

不然則非惟汝貞死若等皆死矣乃許諾曰吾當女言之遂起而出仍以冲妻語具布諸吏乃愕然驚惧俱詣崔沖所寓之舍乃哭甚悲冲令侍人問其故諸吏進白一巫為言我等曰汝貞以棄兒之故獲病於天今若不還此兒則汝貞病勢必不瘳是以哭之冲佯驚曰若然則吾還率未乃命李續等遣之入海求兒不得意欲還未忽聞小兒讀書之聲顧瞻海島有其兒獨坐高巖之上而讀書矣遂浮海至巖下停船仰呼曰公父母獲病苦劇願欲見君故我寄今欲取公而至於斯也兒曰父母始以我名金猪之子而已棄于此豈不小愧而今欲見我耶昔陽翟大賈呂不韋納妾知有娠而遂獻秦王七月而生所娠之兒則宗是呂氏而秦王猶不敢棄况我之慈母娘我三月至文昌未幾為金猪所失逾月得母六月而生我果為金猪之子乎我若全猪之子則我之耳目口鼻豈非如金猪之耳目口鼻也

然而我名詐為金猪之子而乃棄于此其而殘忍薄行之人也  
我今何面目往見父母哉強欲取我仁當沒海矣年甫三歲於  
是李績等乃還告厥由冲悔之曰我之過也將卅人數百而至  
海口為兒作棲臺於海島上招命其兒名此棲臺其兒名其臺  
曰月影臺名其棲曰望景棲於是冲自責其過曰吾亦慙於汝  
仍以鐵杖與其兒而還居五日天儒數十會其臺上各以所學  
竟教其兒由是大悟文理遂成文章其兒常以鐵杖每書千字  
于臺下沙中三尺之杖幾至半尺矣其兒為人清潔詠詩吟賦  
無不中律聞其聲者莫不讚之會中原皇帝出游後庭遙聞詠  
詩之澄集且涼焉問其侍臣曰何處詠詩之聲至於斯也對曰新  
羅儒生詠詩之辨也帝曰新雖羅偏小之國亦有賢士矣如此  
萬里絕域之外詠詩而其辨之義尚如此也況近之則顧可量  
歎稱善者久之於是帝遣才士欽與新羅伎士相爭校藝天下

學士中選諸卓然者二人乃遣之於是學浮海至月眾臺下  
問於其兒曰汝何為者兒曰我新羅丞相業倉頭也又問曰  
汝之年歲幾何荅曰六歲耳學士曰汝知學乎兒即荅曰人不  
學而可謂人乎學士曰然則試相校藝可乎仍乃作詩曰棹天  
波底月兒曰船底水中天學士又曰水鳥浮還沒兒曰山雲漸  
復連於是學士自知其能不及其兒乃相謂曰年未七歲之兒  
其才能如此達知文才過人者不可勝數然則吾等雖入新羅  
何能敵而校藝我不如還去於是乃還中原告皇帝曰新羅之  
伎文才高遠者不可勝數而其中又有尤善者雖如臣等百數  
不能敵也於是帝大怒欲攻新羅乃以白綿大裹鷄卵盛於石  
函又煮黃蠅灌於其中不令搖動更以銅鐵銷灌函外使不開  
見而仍以重書封於持函使者曰汝國若不能究此函中之物  
而作詩獻之則汝國屠而滅之矣於是使者奉重書至鷄林王

見之驚異於是招會天下名儒於白虎館而俾下令曰能有究此幽中之物作詩者吾且尊官與之分上海島月影臺上詠詩之兒聞其下令及承相羅業女子色貌才藝且有節行改着弊衣詐稱舊鏡之賈乃入京師以簪鏡之舞教呼於承相門前於是羅女聞之仍以陳鏡授遣乳母而遂從乳母出于外門之內倚屏隙伺之其賈隱目視之心以為羨所操之鏡故墜破之乳母大驚恚怒頓足賈兒曰鏡已破頓足何事顧以身作奴以賞此鏡矣更無惠也乳母入告承相乃為許焉其兒名自為破鏡奴於是承相乃命破鏡奴養其羊馬自是羊馬無不肥陽矣一日牧馬山間放草群馬自散林下天地卽為冢而卧日暮山澗群馬乃散破鏡所卧之處皆向悅首羅立見者莫不異馬於是承相妻聞之謂夫曰破鏡狀貌奇異上多可眼之事意必非常之人也願君謁此廝役賜以不賤之役承相然而從之

曾植東山之花仍使破鏡好視之自是花草燭鑑小無裏落而  
鳳鳥亦翫巢於花枝矣於是破鏡聞鳳凰之祥乃作悲歌承相  
乃入東山翫花問於破鏡曰汝之年歲幾何而或有學書乎對  
曰年今十一而早喪父雖欲學書孰從學文哉承相戲之曰欲  
為學書乎汝欲學之吾當教之對曰不敢請因亦願也承相笑  
曰奇哉三仍以還家破鏡亦以為笑居旬日破鏡空聞羅女欲入  
東山翫花但恥破鏡未果破鏡心以為好入見承相曰我之來  
此今幾數年而一不徃省老母願給省母之暇承相給暇五日  
於是羅女聞破鏡受由歸鄉乃入東山翫花作詩曰花笑檻前  
聲未聽破鏡隱於花間忽然答曰鳥啼林下淚難者於是羅女  
赧面羞而還是年春三月諸生上書函中之物無可以窮究作  
詩矣羅王甚憂謂侍臣曰賢才不可易得對曰賢才不可易得  
然大王群臣之中羅業文學有餘臣等可以為究此函中之物  
作詩

而作詩也。王以為然乃召羅業委以石函曰寡人群臣之中卿之文才有餘可作此時故委之以幽卿須力亮作於是羅業還家抱幽痛哭破鏡問於人曰承相由何而哭之也人具以言之被鏡頗有喜色於是破鏡折持花枝徃于外龕之內羅女支頤而坐悽然淚下忽見壁上掛鏡裏如有人歎心以為恠俄曰窓隙伺之破鏡乃持花枝而立外羅女怪而問之曰汝何以入來耶破鏡答語曰聞君欲覩此花故為君折花入來未枯之時受而覩花羅女歎歎太息破鏡慰之曰鏡裏數落之人使君必無患矣願勿憂而速受此花於是羅女愧而起入不復出焉羅女心怪破鏡之言乘間謂承相曰破鏡雖幼童子才學絕人且有神奇之氣招命破鏡究此幽中之物而作詩能作此詩矣承相曰汝以此事為易發言何其輕易耶羅女曰談語論惟寂能生大鷗破鏡雖驚安知溫其大才乎仍以破鏡無憲之言告之曰

破鏡若不才能何以出此言承相意其頗然乃召破鏡溫言曰汝若究此函中之物作詩非徒厚賞當遂汝意破鏡固讓曰雖賜重賞宣能作詩哉於是羅女聞破鏡之言乃謂承相曰夫好生惡死人之常情故昔有一人生事當刑有吏問曰汝若作詩吾當赦之其人不曉一字而乃泛其命况破鏡文學有餘而佯為不能今家君負挫破鏡則宣無好生惡殺之心而不從我承相以為然乃負破鏡曰汝以我之倉頭不聽吾言罪當斬之仍命他奴將下斬之破鏡佯忍許之放之良久破鏡持函以出中門之內自言曰此所謂多被敵兵欲殺謀臣者也如我者雖死不足惜也其於承相何尚焉承相妻如廁聞破鏡之言入謂承相曰我聞破鏡之言全無作詩之意於是承相令乳母自諭曰汝之文才有餘而終不能作詩有何所欲耶如有所欲母教導我而直言方且龜之破鏡默然良久曰承相以我為婿則吾必為

之作詩矣乳母入報承相曰宣有以蒼頭為婿之理乎汝言太謬然而畫女顏色賜之矣作詩然後必以為婿矣令乳母出以告之破鏡含笑曰畫餅於紙上而終日見之何飽之有少食然後可為飽腹矣仍以足推函而偃卧曰吾雖寸斬不能作詩也乳母入白承相默不言於是羅女謂承相曰今家君愛我不聽破鏡之言則後必有悔之事願從破鏡之言而父母長享富貴不亦榮乎自古以来所可愛者唯獨人生而已矣承相曰善哉汝言父母之心若以此兒為配則使汝遐有百年之患故無所奈何汝言如是可謂孝女矣於是承相與夫人約為婚姻乃令侍婢燉水洗破鏡之身以去其垢而更以羅巾拭之然後歸以錦衣遂卜日成禮焉翌日承相使人於蘭房曰婚郎作詩耶對曰糊終於壁自取毛公挾之足指而宿焉於是羅女亦憑假寢夢雙龍從天而下相交於牕上又有五色斑衣之

童十輩奉函而乃立唱歌函欲自開俄有五色瑞氣出自雙龍之喉貫照函內紅衣青白之人羅列左右或製詩吟之或搦筆書之際忽覺夢事大異乃搖其夫而令寤之於是矯仰久伸而起即製其詩大書于糊壁之上龍蛇動如矣其詩曰團<sup>二</sup>石中卯半玉半黃金夜<sup>二</sup>知時鳥含情未吐音製畢入遣承相前承相見之頗有喜色猶未信焉及聞羅女夢所中覩之事然後乃信之奉詩詣闕獻于王<sup>二</sup>見之乃驚曰卿何知而作也對曰此非臣之所製也臣媚之作也是以臣不知其所製也於是羅王遂遣使者獻詩于皇帝<sup>二</sup>覽之良久曰爾云者是也乃亦函見其舉亦成難之形然後始知含情未吐音之句帝乃歎曰天下之奇才也於是招學士以詩示之莫不讀之一日學士上書大抵在人袖中之物能知者尚難况新羅絕域藩籬之國其人能知中夏細微之事而如此作詩其為才能何可量哉中夏之大

如是而終無一士之卓然者況新羅偏小之國才能如此小國  
將有負大國之心願陛下湏喚此儒以難作詩之事皇帝深以為然乃詔新羅嶽作詩之士於是羅王招承相羅業曰今皇帝欲侵我國又嶽作詩之士卿之婿郎不得已行然尚幼送之似難卿末代行乎對曰臣亦推大王之言是也乃還家泣其謂家人曰今天字詔我國嶽作詩之人可為危矣婿郎尚幼不可遣之我不得已伐行矣一行無復還生將為奈何於是羅女退謂夫曰君何以作詩今又有徵作詩之人也仍以承相代行之語告之婿郎曰承相代行則非唯不還又有大禍我行之羅女曰今君棄我萬里之行則其能復還乎乃愴然淚下婚郎慰之曰君亦不知古人有言天生大財必有用今入中原則天子必用我大則封侯小則將相矣君母見傷丈夫周游天下自古有之我之此行是忘丈夫之道豈有不還之理乎仍陳承相不可代

行之事羅女入謂承相曰婿即自欲行之承相入闈上言曰臣預意代行臣婿雖幼才能十倍於臣而寃此凶中之物作詩故欲遣婿即矣上以為然許之翌日婿即入闈謁見王問曰汝之年歲幾何對曰十有二矣上曰汝之年少若是雖入中原將為奈何對曰誠以年體為之則天下之俊年長體壯者何不為寃此必中之物而作詩也王驚愕乃試問曰汝入中原將何意以對皇帝乎對曰大凡長者之於小者長者以長者之道遇小者則小者亦以小者之道事長者故今中國以長者之道遇小國則小國敢宣不以小者之道事大國乎此之不為而顧欲侵之以鷄卵盛於石函送于我國使之作詩又嫉作詩之人而寃之大國之道果如是反覆乎如此欲令小國以小者之道事之是緣木猶而未蕩也臣以此欲白于皇帝於是王大奇其言乃下床握手而謂曰汝入中原以後汝之轍家我當復繇且賜衣廩

以慰將還准於今行何以為餽婿即辭謝曰不領他物而但願五十尺帽耳王即造與之於是婿即拜辭而出乃自稱新羅文章崔致遠直向中原至海濱姻黨來迓設酌以慰餞別於是羅女不勝難恨乃作詩曰白鳥渡口漂海烟孤帆去接青天別酒緩歌無好意愁苦愁疊夜何眠致遠亦作慰之詩曰東房夜夜莫愁苦翠鱗花顏忍裏耗此去四名當自取與君富貴喜邱邱遂浮海至瞻星島下船回而不流致遠問其亭長對曰曾聞神龍在此島下顧致祭禱數遠從其言遂下船登島上有年少儒生拱手而坐致遠怪而問之曰汝何為者其儒起而敬拜仍跪答之曰我龍王之子李牧也又問曰汝何為至此對曰今聞先生以天下文章將到此故欲從學而至此待之矣復言曰夫我之地與尊之地殊異無孔子之學故雖欲學書無由得學是以我嘗自愧曰我作何罪誤生此地不得聞孔子之道耶是

天下文章豈非天欲使我得聞聖人之道耶乃重致敬邀入龍宮致遠辭而行迫儒生強請曰願須臾入留致遠許諾謂儒生曰汝家安在對曰家在水下耳致遠曰然則從何以入儒生曰願乘我背而少頃瞪目則可入矣致遠從其言於是儒生負致遠從窟下而入水中比至龍宮前儒曰已矣致遠開目則至於門下乃立於階下其儒入報龍王曰大喜即為出拜遂邀入宮對坐乃為談酌慰之於是致遠行迫告辭龍王曰文章幸為我見弊室而不留數日卒然遽行於我心有憾焉仍言曰我之中子李牧才健遇人願與俱行若有大慶之勢能禦之致遠許諾曰當僉命遂與李牧俱行還至始相逢處亭長於窟下艤船而泣忽見致遠仍賀曰後何處來耶從仙間而來亭長曰昨日明公將祭于島上而狂風遽起白浪汹湧宜晝晦我心以為祭不得效值此大變而泣之矣今偶得見其意甚幸可勝道哉乃

問曰彼在測之童未知何人致遠曰龍宮水府之賢人也亭長曰然則何以致此致遠曰將往中原今為我而至於此耳。又曰風動書晦者此儒未故也遂泛舟而行常有五色雲氣而敵浪上矣至魏耳島適旱為甚萬物盡赤其島民人聞崔文翫至趨迎哀乞曰北島人民不勝旱苦皆枯危亡而其幸不死者亦皆難敵此島幾空今幸天下之大賢已至此土豈非欲返窮命也又曰聞賢人苟致至誠天必應之伏願明公特思系林之義以文禱雨以救萬死之命致遠可憐其情顧謂李牧曰君之才能無可當義勇洒雨以濟此島枯死之民李牧乃從其命遂入山間有噴黑雲蔽日天地混暗雨下如注川溝漲溢島民大悅於是李牧出自山間坐于致遠之傍噴之雲霧復合雷鋒聞之大雨如初俄有青衣僧持赤焰而下大呼李牧曰吾受命於天斬誅汝身急出待罪麾其焰而進李牧大懼謂致遠曰吾不違先

先之命而不受天命擅矯下雨故天憎我恣欲受矯制之罪此  
為奈何致遠曰君須勿憂小嘵隱身則得免矣於是李牧遂化  
為蛟蛇隱於致遠所坐席下天僧謂致遠曰天帝亦以遣我者  
誅李牧以瘳其罪也今足下隱而不出何也致遠曰李牧有何  
罪過而天帝欲誅之也天僧曰此島之人父母不孝兄弟欺其  
貪殘陵蔑長上風俗如此孔惡故天帝故不下雨今李牧不受  
天命擅自下雨故天乃憎之遣我誅之矣致遠曰我為此島之  
人乃命李牧下雨矣罪我不在牧欲誅之誅我可矣天僧曰  
天帝命我曰崔致遠在天上時適得竊罪而落於人間耳本非  
人間碌碌之人也汝斬李牧時若崔致遠懇止之慎勿誅之  
乃辭還天於是李牧復化為人問於致遠曰先生在天上時作  
何罪而落於是間致遠曰我以月宮桂花未開誣以已開告於  
天帝故以此作罪耳仍謂李牧曰汝雖龍王之子我曾未見龍

身汝為我試之李牧曰如欲視之則非難也但恐先生驚且畏  
也致遠曰夫以天僧之威我尚不畏矧見汝身之變而畏也李  
牧曰若然則吾當試之乃入山中化為黃龍而乃呼致遠曰見  
之失魂仆地湏臾復蘇乃謂李牧曰吾獨行之汝速還去李牧  
曰始以家君使我侍慰先生今未到中原安忍遽弃而乃還哉  
致遠曰我之行幾近中原亦無可為之事莫如還往李牧曰先  
生欲還去則不敢違命仍踴躍大吼舞振天地而去致遠至  
浙江舍止休有一老嫗携酒來饋仍以浸薺綿與之曰此物雖  
微少者可用慎勿失之致遠曰謹受教乃辭而去至陵原道傍  
舍有一老翁掩曉西坐問於致遠曰儒子將安之致遠曰今向  
中原耳翁慨然嘆曰汝入中原則父有大患矣汝須慎之若不  
慎之則亦難生還矣致遠拜問其故翁曰今限五日而行則有  
大木當道而其木邊又有美女左手奉盤右手奉玉而坐矣汝

見其女致敬拜謁而問之其女必詳教之行五日果大水遣有一  
義女奉王而坐乃敬拜謁其女曰汝何為者致遠曰我是新  
羅崔致遠也又問曰汝將安往答曰向中原耳女曰將何事  
而往致遠具告厥由女誠之曰中原大國也與小國殊異今天  
子聞君至必設九門然後迎入汝矣汝入其門慎勿放心大禍  
將至矣仍出給符書誠之曰汝至外門以青符書授之至二門  
以丹符書授之至三門以白符書授之至四門以黃符書授之  
至其餘門乃以詩荅人之言則禍將消之女仍忽不見進往洛  
陽有一學士問於致遠曰日月懸於天而<sup>天</sup>者懸於何處耶致遠  
曰山川載於地而地者載於何處也汝言地之載處則吾言天  
之載處矣學士不能答於是聞崔文章至欲誑之乃三門內鑿  
坎教之令樂人伏于其中誠之曰崔文章若入來共奏樂聲以  
亂其心又於四門內設帷伏象八帳內召致遠於是致遠

緩步入門所着之帽觸于門上乃歎曰雖我小國之門我帽不  
觸況於大國之門我帽觸耶久而不入於是皇帝聞之甚慙即  
令破毀其門然後更招致遠乃為入門俄聞地下有樂聲即以  
青符投之其聲寂寥至三門又有樂聲以白符投之其聲即寥  
至四門見有白象隱於帷內以黃符投之化為黃犧統於象口  
不敢開口是故無患而得入於是帝聞致遠於重門無患入未  
大驚曰此固天地所知之人也至五門又有學士羅列左右爭  
相問語致遠不以為應惟作詩與之蓋頃刻之間所製之詩不  
可勝記矣學士不敢復言及至御前帝下床迎之乃叙暄涼畢  
仍問曰卿究函中之物作詩字對曰然矣帝曰何知而作詩耶  
對曰臣聞凡賢者雖在天上之物達知臣雖不敏豈不知函中  
之物作詩乎蓋乃心奇之又問曰卿入三門內未聞樂舞耶對  
曰未聞於是帝招三門內樂人詰之皆曰我等共奏樂之際有

無不紅衣者數千乘縛我等曰大賓志矣勿為奏樂仍以杖擊之不敢耳帝大驚令人注視坎中有大蛇盤焉帝乃歎曰此非常之人也不可忽也於是帳御飲食泛宮皆如天子居矣一日帝與致遠相語移日其動靜語默無異常人故帝自薦曩者之事雖異然朕非親見不足盡信朕觀試之於是曰食時先以毒藥納于食中相及對食致遠知而不食帝問其故對曰毒物社於食中故不食耳帝曰何以知之對曰我占幕上烏帝之知之帝前秋帝已罷曰朕未見卿才自以為過今不及也愈益厚遇會是年大會天下佼生以試科試儒數八萬五千五百人致遠亦參由是杜元帝曰致遠以小國之儒卓居其首甚可貴也仍賚賜至累鉅萬遂封為文信侯屢數年黃巢賊俚李等聚軍三萬人破陷群縣七年討之不克皇帝以致遠為將乃遣討之致遠至黃巢賊中不與相戰但作一幅詩乃遣賊百賊人遂降

於是致遠擒魁首而來帝大悅益食邑且賜黃鸝鑑得幸群臣無及由是大臣好賢嫉能多譖曰崔致遠以為中國雖大不如小國也於是帝大怒乃貶致遠於南海島上絕食致遠帝以老嫗所授浸醬綿承露飲之得以免死星一月帝欲知致遠否乃使人招之致遠心知其意以微聲應之使者還白幾尤矣於是諸大憲皆朝曰致遠以小國毗鄰之來於中國萬端欺上幸得備位恃勢矯人今反受其殃而餓死矣會安南國使者奉貢如唐致遠所謫之島忽見島上有儒生與僧共坐而讀書又有天女數十羅列唱歌矣遂停船上謁請詩於儒其儒作詩與之曰慎勿失之於是使者拜辭至唐以其詩獻于皇帝覽之曰是何人所製也對曰臣所遇南海島上有儒生與僧共坐讀書而天女數十輩唱歌圍棗而所製給也帝招辟臣以詩示之曰觀其詩意雖若致遠所製之詩然絕食三月空腹埋甚可怪也

封

乃使人更招致遠。高聲應之曰汝何為遠而還乎我命帝不  
罵不已使者還白曰致遠非唯不死乃高聲應之帝大驚曰天  
之所恤之人也又命使者曰招還致遠使者奉命迎至洛陽宣室  
帝佯慰曰卿在外三月何不一參見郎仍言語云普天之下莫  
非王土章土之濱莫非王臣以此言之汝雖新羅之人新羅亦我  
之地汝君亦我之臣也我使者何也致遠書一字於空中而躍去  
其上曰是亦陛下之地乎帝大驚下床頓首謝之致遠謂帝曰  
陛下信聽小人之謗若令臣至死故今還我國仍袖虫猪字擲  
之於地即化為青獅遂乘其獅騰入雲間而來化至新羅境見  
有人會遊溪邊致遠問於人給之曰大王出遊致遠信之遂往  
見之乃獵人也遂行至東門外通羅王出遊見致遠遠避大國  
今以還來乃令人捕縛致遠切責曰子欲誅汝而為其刃多故  
不忍加罪汝今以後毋令見我由是致遠遂將家人入伽倻山不復還